

근대 이후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과 일본근대문학의 역할*

- 소설 『산리쿠쓰나미(三陸津波)』와 르포르타주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三陸海岸大津波)』를 중심으로 -

조미경**
cho9631cho@naver.com

<目次>

- | | |
|------------------------------------|---|
| 1. 서론 | 3. 일본 동북부지역 자연재해와 「산리쿠쓰나미」/
『산리쿠해안거대쓰나미』의 위치 |
| 2. 일본 동북부지역 자연재해의 역사와 진재
(震災)문학 | 4. 기록문학으로서 진재문학의 역할과 의의 |
| | 5. 결론 |

主題語: 재해문학(Disaster literature), 메이지 산리쿠 쓰나미(the Meiji Sanriku Tsunami), 쇼와 산리쿠 쓰나미
(the Showa Sanriku Tsunami), 산리쿠 쓰나미(Sanriku Tsunami, 三陸津波),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
(Sanriku Coast Giant Tsunami, 三陸海岸大津波)

1. 서론

2011년도 3.11 동일본대지진과 대형 쓰나미(津波)는 일본의 간토(関東)지역에서 동북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피해와 충격을 남긴 거대 자연재해였다. 특히 이 동일본대지진 당시 대형 쓰나미의 영향으로 인류문명의 근대적 기술이 집적된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를 움직이는 전원을 상실하고 결국에는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고로 이어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3.11 동일본대지진은 천재와 인재가 서로 중첩되면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산업시설의 손실, 도로나 인프라의 상실, 다량의 이재민과 이주자의 발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후유증을 남겼다.

이러한 의미에서 3.11 동일본대지진과 연이어 일어난 대형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福島)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3386)

**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는 일본근현대사에서 최고 재난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일본 동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러한 자연재해는 2011년이 처음은 아니었다. 역사적 사실로 보면 일본 동북부 지역은 거대 지진과 대규모 쓰나미가 반복하여 연이어 일어난 지역이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 이후만 보더라도 22,000여명의 인명피해를 낸 1896년 메이지 산리쿠(三陸)지진과 쓰나미, 3000명 전후의 인명피해를 낸 1933년 쇼와 산리쿠지진, 1960년 칠레대지진으로 인한 동북부지역의 대형 쓰나미, 52명의 인명피해를 낸 1968년 도카치 오키(十勝沖)지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러한 자연재해에 수반하여 이들 재해의 공포와 비참한 피해상, 그리고 슬픔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는 문학작품이 연이어 창작되었다. 예를 들면 1896년 6월 메이지 산리쿠 대지진 당시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가 쓰나미를 모티브로 발표한 하이쿠 작품 「쓰나미(海嘯)」(1896.6), 역시 메이지 산리쿠 지진 당시 아에바 고촌(饗庭篁村), 모리 오가이(森鷗外),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 오사키 고요(尾崎紅葉) 등 당대 대표적인 문인들의 작품을 모아 문학잡지 『문예구락부(文芸俱樂部)』가 그 판매 이익금을 피해지에 기부할 목적으로 간행한 작품집 『쓰나미의연소설(海嘯義捐小説)』(1896.7), 일본 동북부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쇼와 산리쿠 지진과 쓰나미 등을 상세하게 작품에 투영한 미우라 데쓰로(三浦哲郎)의 『바닷길(海の道)』(1970), 산리쿠(三陸) 해변을 배경으로 하여 메이지 산리쿠 쓰나미 때는 남편과 부모 등 가족들을, 쇼와 산리쿠 쓰나미 때는 아들을 잃은 여성의 생애를 그린 스치 도쿠헤이(須知徳平)의 「산리쿠 쓰나미(三陸津波)」(『春来る鬼』, 講談社, 1978) 등 다양한 작품이 존재한다. 그런데 위의 작품들이 픽션으로 만들어진 진재문학이라고 한다면 요시무라 아키라(吉村昭)의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三陸海岸大津波)』(中公新書, 1970)라는 작품은 실제 메이지쇼와의 산리쿠 대지진과 쓰나미의 참상과 규모, 그리고 칠레대지진 당시 대형 쓰나미의 실상을 기록한 르포르타주 작품이다. 특히 소설 「산리쿠 쓰나미」와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는 근대기 이후 일본 동북부지역에 있었던 쓰나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허구와 실제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 지역의 자연재해를 일관성 있게 포착하여 묘사한 작품들이다.

이 「산리쿠 쓰나미」와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는 일본 동북부지역의 연이은 자연재해를 모두 기록한 문학으로서 3.11 동일본대지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빠뜨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기록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품은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과거의 사례로서 여러 번 언급은 되었지만 이들 작품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상당히 부재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교육적 관점에서 이 작품의 피해체험을 쓰는 과정을 기술하거나¹⁾, 3.11

1) 安部貴洋(2012.3)「被災体験を書くということ—吉村昭『三陸海岸大津波』と「おとなの眼」」『教育』第62卷 第3号、国土社、pp.112-115

이후 역사자료의 관점²⁾이나 자료소개의 차원³⁾, 그리고 3.11 동일본대지진의 체험을 이 작품을 통해 반추하려는 시도⁴⁾, 아니면 환경의 관점에서 논해지는 경우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글들은 3.11 동일본대지진이라는 거대한 자연재해와 사상초유의 원전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이전에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였던 동북지역 쓰나미를 기록문학 형태로 남긴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를 두세 쪽으로 짧은 형태로 소개하거나 에세이 식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⁶⁾ 한편, 역시 3.11 이후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중략) 제 자료를 모아 ‘천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적어도 후대에 남는 자료”⁷⁾를 전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스치 도쿠헤이의 「산리쿠 쓰나미」 등을 다양한 진재관련 자료를 소개한 『대진재의 기록과 문학(大震災の記録と文学)』(2011)도 이와 비슷한 의도에서 기획된 저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일본 동북부지역의 자연재해를 형상화한 문학작품은 물론 소설 「산리쿠쓰나미」와 르포르타주 문학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도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 문학이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홍수처럼 쏟아진 ‘진재문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⁸⁾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일본 진재문학 연구에서 등한시해 왔던, 3.11 동일본대지진과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였던 이른바 산리쿠(三陸)지역으로 불리는 일본 동북부지역의 쓰나미 재해를 형상화 한 문학작품과 문학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그 전모를 고찰하도록 한다. 특히 메이지 산리쿠 쓰나미, 쇼와 산리쿠 쓰나미, 칠레대지진 당시 쓰나미 모두를 통시적으로 포괄하여 묘사한 스치 도쿠헤이의 소설 「산리쿠 쓰나미(三陸津波)」와 요시무라 아키라의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를 연구에 중심에 놓음으로써 기록문학으로서 진재문학의 위치와 의미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번성하게 창작되고 있는 일본 진재문

2) 佐藤美弥(2011.10)「緊急特集 東日本大震災・原発事故と歴史学<史料・文献紹介>吉村昭『三陸海岸大津波』」『歴史学研究』第884号、pp.67-68

3) 高山文彦(2011.9)「恐ろしさと美しさ—吉村昭『三陸海岸大津波』」『有隣』第516号、p.1

4) 高山文彦(2011.9)「現地ルポルタージュ『三陸海岸大津波』を歩く」『文芸春秋』第89巻 第10号、pp.50-71

5) 尾池和夫(2011)「吉村昭著『三陸海岸大津波』を読む」『環境保全』第26号、京都大学環境安全保健機構附属環境科学センター、pp.2-5

6) 須藤宏明(1998.3)「須知徳平論—「南部牛方節」「春来る鬼」における<まれびと>の実体化」『東北文学の世界』第6号、pp.71-84. 이 연구처럼 스치 도쿠헤이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고 그 중에서 「산리쿠쓰나미」를 다룬 경우는 부재한 상황이다.

7) 志村有弘編(2011.7)『大震災の記録と文学』勉誠出版、pp.3-4

8) 물론 일본문학사에서 진재문학 분야가 주요한 연구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주로 간토(関東) 대 지진, 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 동일본대지진과 연관된 진재문학 연구가 그 중심이었다. 나아가 동일본대지진을 다룬 경우라도 그 이전에 있었던 일본 동북부지역의 쓰나미와 연관되는 경우도 매우 드문 실정이다. 예를 들면, 木村朗子(2013)『震災後文学論 あたらしい日本文学のために』青土社, 限界研編(2017.3)『東日本大震災後文学論』南雲堂 등은 동일본대지진과 연관된 진재문학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의 동북부 지역 쓰나미 문학에 대한 응시는 거의 부재한 편이다.

학의 외연을 확장함과 더불어 일본문학에서 동북부 지역 재해문학의 역할과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일본 동북부지역 자연재해의 역사와 진재(震災)문학

일본은 지역적 특성상 지진과 쓰나미, 화산 분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그 어느 나라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다. 3.11 동일본대지진이 강력한 지진의 강도도 문제였지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대부분은 최고 수 십 미터에 이르는 대형 쓰나미로 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방사능 누출이라는 일본 사상 초유의 원전사고도 결국은 쓰나미로 인해 원전을 가동시키는 전원을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이 3.11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일본의 동북부 지역의 자연재해로 발생한 인명·재산 피해는 지진 자체의 피해보다는 이에 수반하여 일어난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훨씬 컸다.

예를 들면, 1896년 6월 15일 단오 명절 때 일어난 메이지 산리쿠 지진은 육지에서 200km나 떨어진 먼 바다가 진원지였기 때문에 실제 동북부 지역의 진도는 2나 3 정도였다.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고 15분 후에 거대 쓰나미가 여러 번에 걸쳐 밀려와 최고 20미터가 넘는 파도로 인해 홋카이도(北海道), 아오모리(靑森)현, 미야기(宮城)현, 이와테(岩手)현에 걸쳐 사망과 행방불명 2만 1959명, 가옥 전파 1844동, 가옥 유실이 9878동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⁹⁾ 1933년 3월 3일에 일어난 쇼와 산리쿠 지진도 역시 이와테현의 육지에서 200km 떨어진 바다에서 일어난 거대지진으로서 진도는 4, 5 정도였다. 그러나 이 자연재해의 경우도 지진의 흔들림보다는 역시 동북부 해안을 강타한 대형 쓰나미가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였다.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福島)현에 최고 30미터에 달하는 쓰나미로 사망과 행방불명 3064명, 가옥 유실 4034동, 가옥 도파(倒壊) 1817동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¹⁰⁾ 한편, 1960년 5월 24일 지구의 반대편에 있었던 칠레에서 일어난 대형 지진으로 인해 지진 발생 후 22시간 만에 역시 일본 동북부지역에 최대 6미터에 달하는 쓰나미가 밀려왔다. 이 쓰나미로 사망과 행방불명이 142명, 가옥 전파가 1500동에 이르렀다.¹¹⁾ 1968년 5월 16일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등에서 진도 5의 규모로 일어난 도카치오키(十勝沖)지진은 사망과 행방

9) NHK情報ネットワーク・NHKソフトウェア編(2002)『NHK20世紀日本大災害の記録』日本放送出版協會、pp.10-11 참조

10) 위의 책, pp.30-31 참조

11) 위의 책, pp.58-59 참조

불명자 52명, 가옥 전괴가 673동, 가옥 침수가 529동에 이르렀다. 이 지진으로 최대 5미터에 이르는 쓰나미도 발생하였지만 마침 간조기에 쓰나미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행히도 쓰나미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행하지 않고 선박의 유실과 가옥 침수로 그쳤다.¹²⁾

이렇듯, 일본의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등 3.11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는 지진 그 자체의 피해보다는 커다란 쓰나미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가 훨씬 막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동북부 지역의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한 진재문학은 그 대부분이 이러한 쓰나미를 대상으로 하여 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메이지 산리쿠 지진 당시 『문예구락부(文芸俱樂部)』가 임시로 출간한 소설집 특집호 제목이 『쓰나미의연소설(海嘯義捐小説)』이었다는 점에서도 당시 문학자들이 동북부지역의 자연재해 중 무엇에 주목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 특집호에서 오자키 고요(尾崎紅葉)가 “산리쿠 쓰나미(海嘯)의 참혹함을 듣고 아득히 그 자취를 애도한다.”¹³⁾라며 전통시가를 읊고 있다. 이 오자키 고요뿐만 아니라 작품집에 실린 많은 작품들의 시선은 ‘쓰나미’ 재해와 그 재해가 남긴 상흔과 공포, 그리고 이에 대한 슬픔에 관한 글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본 동북부지역의 자연재해를 그린 진재문학은 모두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나기다 구니오(柳田國男)와 미우라 데쓰오의 작품도 결코 예외적이지 않다.

- 기요시(清) 동생으로 후쿠지(福二)라고 하는 사람은 해안인 다노하마(田の浜)에 사위로 갔는데 몇 해 전의 거대 쓰나미(大海嘯)를 당해 아내와 아이를 잃고 살아남은 두 아이와 함께 원래 집부지에 오두막집을 세워 1년 정도 지냈다. (중략) 그 안개 속에서 남녀 두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더니 여자는 바로 죽은 나의 처였다.¹⁴⁾
- 3월이 되자 9일의 정오 지나 돌연 격렬한 지진이 왔다. (중략) 지면은 파도를 치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배에서 넘실거리는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중략) 다행히 쓰나미(海嘯)는 오지 않았다. 바닷가에 사는 자에게는 지진보다 가장 쓰나미가 무섭다. 지진은 단지 놀려 찌부러뜨릴 뿐이지만 쓰나미는 송두리째 휩쓸어 간다. 쓰나미가 오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¹⁵⁾

이 인용문 중 첫 번째 이야기는 1910년에 야나기다 구니오가 사사키 기젠(佐々木喜善)으로부터 들은 이와테현(岩手県)의 도노(遠野)지방에 전해지는 구전이나 전승, 일화 등을 묘사한

12) 위의 책, pp.76-79 참조

13) 尾崎紅葉(1896.7)「藻くづ」『文芸俱樂部第2巻第9編 臨時増刊 海嘯義捐小説』博文館, p.3

14) 柳田國男(1955)『遠野物語』角川書店, 초출년은 1910년

15) 三浦哲郎(1980)『海の道』『海の道・忍ぶ川』新潮社, pp.201-202. 초출년은 1970년

설화집 『도노이야기(遠野物語)』의 99번째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메이지 산리쿠 지진 당시 쓰나미에 휩쓸려 죽은 아내가 결혼 전에 사귀고 있었던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화장실에 가려던 남편이 발견한다는 초현실적인 전승 이야기이지만 그 모티브는 역시 쓰나미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한편 두 번째 인용문은 미우라 데쓰로(三浦哲郎)가 역시 일본 동북부 지역을 무대로 한 소설 『바닷길(海の道)』의 한 부분이다. 이 소설에서는 위에서 인용한 1931년 3월의 지진뿐만 아니라, 간토(關東)대지진, 그리고 쇼와 산리쿠 지진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동북부지역에서 자연재해라고 하면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진보다는 쓰나미가 가장 두려운 대상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 소설에서는 쇼와 산리쿠 쓰나미를 둘러싼 자연재해에 대한 기억을 상세하게 각인시키고 있다.

그런데 동북부지역의 쓰나미를 그리는 작품이지만 아래의 하이쿠(俳句)는 이러한 쓰나미 재해에 대해 또 다른 측면을 제기하고 있다.

오랫동안 동해(東海)를 봉쇄하여 다시는 이러한 재해가 없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거친 바다를 막아서 끼지 않는 뭉게구름(あら海をおさえて立ちぬ雲の峰)¹⁶⁾

이 인용문은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가 메이지 산리쿠 지진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문 『일본(日本)』에 발표한 「쓰나미(海嘯)」라는 일련의 하이쿠 작품 중 하나이다. 이 작품에 대해 “시키의 감수성은 피재지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뇌를 공유하며 깊이 슬퍼한다.”¹⁷⁾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앞으로 이러한 쓰나미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즉 ‘방재(防災)’에 대한 의식이다. 마사오카 시키는 이 작품에서 쓰나미로 인한 사람들의 “규환(叫喚)의 소리를 듣고 전신에 자신도 모르게 전율한”다며 쓰나미가 남긴 비통한 현실을 노래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마사오카 시키는 바다를 봉쇄하더라도 이런 재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적극적으로 설교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단지 메이지 산리쿠 쓰나미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까지 이어지는 교훈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3장과 4장에서 상세하게 분석하도록 한다.

이상 고찰해 보았듯이 일본 진재문학사에서 그다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1896년 메이지 산리쿠 지진, 1933년 쇼와 산리쿠 지진, 나아가 1959년 칠레지진은 모두 일본 동북부지역에 심대한 피해를 남긴 거대 자연재해였다. 그런데 이들 자연재해는 지진 그 자체보다는 이에 수반하여 발생한 쓰나미가 남긴 피해의 정도가 훨씬 심대하였고 공포스러운 것이었다. 그렇기

16) 正岡子規(1896.6.29.)「海嘯」『日本』

17) 清水ますみ(2015)「正岡子規の明治三陸地震津波—明治29年の新聞記事「海嘯」との出会い」『地震学』Vol.6、東北学院大学、p.114

때문에 일본 동북부 지역의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한 진재문학은 다른 한편으로 ‘쓰나미 문학’이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쓰나미의 공포, 피해의 심각성, 쓰나미가 휩쓸고 간 처참한 상황, 슬픔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일본 동북부지역 자연재해와 『산리쿠쓰나미』/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의 위치

이상과 같이 피해 지역이라는 측면과 재해 형태라는 측면에서 3.11 동일본대지진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였던 일본 동북부 지역의 자연재해는 지진 발생과 이 지진에 수반된 대형 쓰나미가 재해의 일반적인 형태였으며 이 중에서도 지진보다는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압도적으로 심각한 것이었다. 이러한 동북부의 자연재해를 모티브로 하여 이를 형상화한 진재문학도 역시 이 쓰나미에 초점을 맞추어 재해의 공포와 상처를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일본 동북부 지역의 자연재해를 형상화한 진재문학도 결코 적지 않게 창작되었지만, 이 중에서 스치 도쿠헤이(須知徳平)의 소설 『산리쿠 쓰나미(三陸津波)』와 요시무라 아키라(吉村昭)의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三陸海岸大津波)』는 동북부 지역의 자연재해를 통시적으로 포착하여 하나의 틀 속에서 묘사하고 있다. 즉, ‘메이지 산리쿠 지진’과 ‘쇼와 산리쿠 지진’은 물론, ‘칠레지진 쓰나미’까지 하나의 작품 속에 포착하여 이를 통시적으로 연관지어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스치 도쿠헤이의 『산리쿠 쓰나미(三陸津波)』는 1978년에 간행된 『봄에 오는 도깨비(春来る鬼)』에 수록된 동명의 소설 등 총 4편의 작품 중 하나이다. 이 소설은 오유(おゆう)라는 노파를 주인공으로 하여 그녀가 경험한 지진과 쓰나미, 가족들이 영위하던 삶의 터전의 상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부 지역에서 어업을 생계로 하여 면면히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의 역사를 그린 작품이다.

1896년 6월 15일 저녁때 산리쿠(三陸) 일대의 어촌에 돌연 거대 쓰나미가 덮쳤다. 이 날은 음력 5월 5일 단오 명절의 날이었다.

그로부터 38년 후 1933년 3월 3일 미명 같은 연안 일대에 재차 거대 쓰나미가 내습하였다. 삼짱날 명절날이다.

산리쿠 연안 어촌의 노인들 사이에 “쓰나미는 명절날에 온다.”라는 속설이 유포되고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¹⁸⁾

이 인용문은 이 소설의 모두부에 해당하는 곳인데 이 소설의 배경이 단순히 하나의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메이지 산리쿠 지진’ 당시의 거대 쓰나미, 그리고 ‘쇼와 산리쿠 지진’ 당시의 거대 쓰나미가 동일한 스토리상에서 조명되고 있으며 37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어난 그 두 사건을 연결하는 것은 ‘명절’이라는 공통점이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 오유의 최후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그 시점이 “1958년 4월말, 칠레 쓰나미 내습의 바로 1년 전의 일이었다.”¹⁹⁾라며 근대기 이후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쓰나미 재해 모두를 상기시키고 있다.

이 소설의 무대는 메이지와 쇼와 산리쿠 지진 당시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던 이와테현(岩手県) 시모헤이군(下閉伊郡) 다로촌(田老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작품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쇼와 산리쿠 지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1933년 기록에 따르면 사상자, 행방불명자 합하여 전 마을의 6할이 넘고 인가, 선박은 대부분 유실, 또는 완파”된 지역이다. 이 작품은 오유가 아직 30살이 채 되기도 전이었던 1896년 단오날 단오명절과 홋카이도에 돈벌이하러 나갔다 집에 막 돌아온 아버지 도쿠조(徳藏)와 남편 야소키치(八十吉)의 귀환을 축하하는 모임으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즐거움에 들떠 있을 때 지진과 더불어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였다. 이 쓰나미로 오유는 아버지 도쿠조(徳藏), 어머니 미야(みや), 남편 야소키치(八十吉), 여동생 다카(たか), 딸 사쿠(さく), 막내 도쿠키치(徳吉), 그리고 아직 이름도 짓지 못한 막 태어난 여자 아이 등 가족 모두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슬픔 속에서 마을 부흥을 위해 구마노신사(熊野神社)의 벳토(別当) 텐에몬(伝右衛門)이 마을 전체에서 살아남은 37명을 대상으로 하여 짝을 지어 신사에서 간단한 혼례만 치르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한다. 오유도 20세 연상인 유자에몬(勇左衛門)과 새롭게 연을 만들어 마을 부흥에 나서게 된다. 갖은 고생과 노력으로 겨우 새롭게 다로촌에서 정착하기는 하였지만 1933년 쇼와 산리쿠 지진 때 오유는 다시 그의 아들인 유사쿠(勇作)를 쓰나미로 잃어 버리고 며느리 기쿠(キク)와 막 태어난 손녀 시즈(しづ)와 다시 생계를 이어나가게 된다.

한편, 요시무라 아키라의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는 처음에는 1970년에 『바다의 벽 산리쿠연안 거대쓰나미(海の壁 三陸沿岸大津波)』(中公新書)라는 제명으로 간행되었다가 1984년 문고판으로 다시 간행되었을 때 지금의 제명으로 변경한 르포르타주 문학이다.

18) 須知徳平(2011)「三陸津波」『大震災の記録と文学』勉誠出版, p.7. 초출년도는 1978년

19) 須知徳平「三陸津波」、p.53

나는 몇 번인지 산리쿠 연안을 여행하였다. (중략) 나는 그 이야기에 촉발되어 쓰나미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쓰나미의 자료를 모아 체험담을 들으며 돌아다니는 동안 하나의 지방사로서 남기고 싶다는 기분도 들었다. (중략) 나는 물론 쓰나미 연구자가 아니며 단순한 한 여행자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적인 지식에는 부족하지만 문외한 나름으로 쓰나미의 무서움을 언급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한다.²⁰⁾

이 인용문은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의 서문에 해당하는 문장인데, 요시무라 아키라는 “소설의 무대로 산리쿠연안을 사용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일본 동북부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자주 여행을 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부인의 체험담으로 쓰나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지역의 쓰나미의 역사와 자료를 조사하고 체험담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르포르타주 문학이다. 요시무라 아키라는 이 작품에서 ‘1896년 쓰나미’, ‘1933년 쓰나미’, ‘칠레지진 쓰나미’로 3부 구성을 하고 있으며, 쓰나미의 역사, 규모, 일화, 피해 정도, 현지 체험담 등 이 세 번의 쓰나미를 통시적으로 살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나미와 연관한 각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도 곁들이고 있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요시무라 아키라가 이 작품을 하나의 ‘지방사’로 남기고 싶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바로 아오모리현(靑森縣), 이와테현(岩手縣), 미야기현(宮城縣)을 중심으로 한 일본 동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산리쿠(三陸)지방이 쓰나미 재해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르포르타주 문학은 바로 동북부 지역 쓰나미 역사의 기록물로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스치 도쿠헤이도 「산리쿠쓰나미」를 포함한 소설집 『봄에 오는 도깨비』,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33년의 산리쿠 쓰나미 당시 나는 이와테현 시모헤이군 미야코초(宮古町, 현 미야코시)에 살고 있었다. 당시의 기억은 언제나 생생하고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 쓰고자 생각하고 있었다. (중략) 단지 다로촌을 무대로 하여 산리쿠 쓰나미의 참상을 다소나마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였다.²¹⁾

여기서 작가 스치 도쿠헤이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던 1933년 쓰나미를 축으로 하여 역시 동북부 지역의 쓰나미의 참상과 역사를 하나의 기억으로서 기록하고자 하였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설 「산리쿠 쓰나미」와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가 일본의 진재문학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를 고려하기 위해 내용은 다소

20) 吉村昭(2004)『三陸海岸大津波』文芸春秋, pp.10-11. 초출년은 1970년

21) 志村有弘編『大震災の記録と文学』, p.249

다르지만 아래의 인용문을 보도록 한다.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각현의 산리쿠 연안 지역은 메이지 산리쿠 쓰나미(1896) 이래, 여러 번의 쓰나미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희생자를 공양하고 금후의 교훈으로 살리려고 한 쓰나미 기념비가 많이 남아 있다. 2000년 단계까지의 조사로 그 총수는 316기에 이르는 것이 분명해졌다.²²⁾

이 연구서의 필자는 메이지 산리쿠 쓰나미 재해 이래 여러 번에 걸쳐 발생한 쓰나미의 기념비를 조사, 분석하였는데 그 수는 결코 적지 않았다. 이러한 쓰나미 기념비들은 “재해의 희생이 된 사람들을 공양”함은 물론 “지역의 과거 재해 경험을 후세에게 전하고 재해 피해의 경감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자발적 움직임”²³⁾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인 기타하라 이토코(北原糸子)는 이 기념비가 “과거의 교훈은 금후의 방재에 살려야 할 소재로서 적극적인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동북부 지역의 자연재해사에서 소설 「산리쿠 쓰나미」와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의 위치는 마치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쓰나미 기념비’와 같은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근대 이후에만 여러 번에 걸쳐 대형 쓰나미 피해를 받은 일본 동북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과거의 피해자들을 진혼하고 자연재해의 공포와 슬픔을 기억하며, 이를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향후의 교훈으로 삼아 방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진재문학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한다면 이 두 작품을 이러한 재해 기록문학으로 간주하였을 때 이 진재문학의 구체적 역할과 의의는 어디에 있는지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보도록 한다.

4. 기록문학으로서 진재문학의 역할과 의의

이상 분석해 보았듯이, 「산리쿠 쓰나미(三陸津波)」와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三陸海岸大津波)』라는 작품은 실제 일본 동북부 지역의 재해지역을 무대로 하여 메이지 산리쿠 지진과 쇼와 산리쿠 지진, 그리고 칠레 지진 쓰나미의 잔혹한 피해상을 쓰나미에 초점을 맞추어 형상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은 다음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진과 쓰나미

22) 北原糸子(2014)『津波災害と近代日本』吉川弘文館, p.172. 이 저서에서는 제7장에서 ‘동북 3현의 쓰나미 비(津波碑)’란을 마련하여 각 지역의 쓰나미 기념비가 언제 어떠한 자연재해를 기억하기 위해 만들었는지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23) 北原糸子『津波災害と近代日本』, p.186

재해에 대한 경계와 교훈을 곳곳에 묘사하고 있다.

- 쓰나미는 30년째마다 덮쳐 온다.
- 지진이 일어나면 반드시 쓰나미라고 생각하라.
- 파도가 빠지면 산으로 올라라.
- 쓰나미에는 부모와 자식도 없다.

연안 어촌의 노인들 사이에 옛날부터 전해진 이들 훈계의 말도 오유는 반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우리들의 기억에도 아직 새로운 1959년 5월 24일의 칠레 쓰나미는 지진의 전조도 없이 내습하였지만 그때까지 산리쿠를 덮친 쓰나미의 기록은 주요한 것만으로도 12회, 고조(高潮) 정도의 것은 수없이 많다.²⁴⁾

위의 인용문은 「산리쿠 쓰나미」에서 주인공 오유가 아직 소학생인 손녀 시즈에게 그녀의 할아버지, 아버지 등 가족 모두의 목숨을 앗아간 쓰나미를 상기시키면서 하는 말이다. 일본 동북부지역의 쓰나미의 다발적인 발생을 언급하면서 지진과 쓰나미가 올 때 취해야 할 행동과 더불어 두 번의 거대 쓰나미로 부모와 남편,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주인공의 훈계의 말은 바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의 경우도 “쓰나미는 자연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도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p.171)라든가 “쓰나미는 시세가 변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금후에도 덮쳐온다.”(p.178)라는 식으로 빈번하였던 쓰나미의 역사와 더불어 그러한 자연재해의 경계와 교훈에 관한 내용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이렇듯이 이 두 작품은 동북부 지역 지진, 특히 쓰나미 재해에 대한 다양한 경계와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리쿠 쓰나미」와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는 에서 말했듯이 일본 동북부 지역의 쓰나미 기록문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 두 작품은 기록문학으로서의 역할, 나아가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먼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산리쿠 쓰나미」와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의 다음 인용문을 주목하도록 한다.

- 다로가와(田老川) 강 입구의, 전에 집이 있었던 장소에 가까스로 보통 정도의 집을 세운 것은 유자에몬과 함께 하고 나서 10년째의 가을이다. 벳토 덴에몬도 이미 죽고 해변에 집을 짓지 말아라, 고 하는 금제(禁制)의 말도 오랜 세월 동안 잊혀 버린 것이다. 이웃 근처에도 집이 들어서고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의 활기찬 울음소리도 들리게 되었다.²⁵⁾

24) 須知徳平「三陸津波」、p.8

25) 須知徳平「三陸津波」、p.42

- 그러나 이 고지대 이전도 세월이 지나고 쓰나미의 기억이 얹어짐에 따라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다. 어업자에게 있어서 집이 고지대에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 상에서 불편이 크다. 그러한 이유에서 처음부터 고지대 이전에 응하지 않는 자도 많았다.²⁶⁾

이 첫 번째 인용문은 소설 「산리쿠 쓰나미」에서 1896년 쓰나미로 인해 마을 전체가 거의 초토화되고 이 마을의 정신적 지주였던 구마노신사의 텐에몬이 앞으로 이러한 거대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바닷가 가까이에 절대로 집을 짓지 못하도록 훈계하였으나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잊어버리고 다로가와 근처를 중심으로 속속 집을 지워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정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에 대한 이러한 경계심의 이완은 1933년 쓰나미가 있었을 때 재차 이 마을이 괴멸적인 피해를 당하는 커다란 이유가 되었다. 1933년 쓰나미로 마을 전체 사람 중 6할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고 마을의 가옥도 다시 거의 초토화되었는데, 텐에몬의 계율을 지키고 그 교훈을 기억하였다면 이 거대 쓰나미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방재의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두 번째 인용문은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 중 한 부분인데 이곳에서도 역시 메이지 산리쿠 지진 당시부터 “고지대로 주택의 이전이 현저하”였고 관청에서도 그렇게 요청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쓰나미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어업에 종사하는 이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바닷가로 주거지를 다시 옮겼던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두 작품은 이전에 경험하였던 쓰나미라는 거대한 자연재해의 교훈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경계감을 표현하고 있는 셈인데, 이곳에 바로 기록문학으로서 이 두 작품의 의도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아래 인용문은 재해의 기록문학이 제시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 “그렇지만 할머니, 이런 커다란 만리장성이 생겼는걸요. 이제 아무리 쓰나미가 오더라도 무섭지 않아요.”라고 시즈가 말하자,
“그런 것으로 방심한다면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어.”²⁷⁾
- 그 이야기를 들은 하야노(早野) 촌장은 놀란 소리를 질렀다. 노다바다케촌(野田畑村)의 쓰나미를 막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방조제의 높이는 8미터이고 전문가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26) 吉村昭『三陸海岸大津波』、p.150

27) 須知徳平『三陸津波』、p.52

“여기까지 쓰나미가 온다고 하면 저런 방조제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라고 불안한 듯이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²⁸⁾

첫 번째 인용문은 「산리쿠 쓰나미」에 나오는 부분으로 일본에서 ‘만리장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큰 제방이 이 다로 마을에 만들어졌는데 손녀 시즈가 이 제방 위에서 이제 어떤 쓰나미가 오더라도 안전할 것이라는 말에 오유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에서 필자가 노다바다케촌의 하야노 촌장 안내로 메이지 산리쿠 지진의 쓰나미를 10세 때 경험한 나카무라(中村)씨를 만나 당시 피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나온 문장이다. 나카무라씨가 사는 지역이 언덕의 중턱 넘어 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당시 쓰나미가 그곳까지 밀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촌장이 놀라면서 전문가들이 이 정도 높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현재의 방조제에 의구심을 가지는 대목이다.

그런데 실제 이러한 방조제가 이들 작품들이 쓰이고 수십 년 뒤에 일어난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쓰나미 재해에 모두가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실제 위에서 언급한 다로촌의 방조제는 쇼와산리쿠 지진 다음해인 1934년부터 건설되어 중단을 거듭하다가 1958년에 완공되어 실제 일본 최고의 방조제로서 ‘만리장성’으로 불릴 정도로 높고 튼튼한 것이었다. 그러나 “총연장 2433미터, 높이 약 10미터로 「만리장성」이라고 칭해진 이와테현(岩手県) 미야코시(宮古市) 다로(田老)지구의 거대한 방조제를 쓰나미가 뛰어넘어 시가지를 삼켜갔”²⁹⁾다는 『요미우리(読売)신문』기사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미야코시 다로지구(구 다로초<旧田老町>)도 한 번에 삼켜져 주민 약 4500명 중 230여명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1896년 메이지 산리쿠 거대 쓰나미 당시, 동 지구에서는 1859명이 사망했는데 그 이래의 대참사가 되었다.”³⁰⁾는 『마이니치(毎日)신문』의 기사를 보면 「산리쿠 쓰나미」와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가 과거 동북부지역의 거대한 쓰나미를 돌아보면서 제시하고자 한 교훈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진다.

사실 3.11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거대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 지역을 휩쓸고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이 당시 일본 정부나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東京電力)에서는 방사능 누출사고가 “상정외(想定外)의 사태”이며 “비상용 전원이 고장난 것은 상정외의

28) 吉村昭『三陸海岸大津波』、p.26

29) (2011.4.11.)「[検証・東日本大震災] (2) 10メートル防潮堤でも守れず=その1」『読売新聞』

30) 竹内正右(2011.4.21)「東日本大震災：宮古市田老地区の津波被害を見て 恐怖、伝承する大切さ痛感」『毎日新聞』

쓰나미가 원인³¹⁾이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15,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500여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수많은 가옥과 건축물, 사회적 인프라가 파괴되고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사고로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위기를 맞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재해 책임자들이 낼 수 있는 말은 ‘상정외의 쓰나미’라는 말 외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렇지만 3.11 동일본대지진이나 거대 쓰나미가 결코 상정외가 아니며 이 지역의 자연재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는 이미 「산리쿠 쓰나미」와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라는 기록문학 속에 분명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창작된 진재문학 중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충실하게 살리지 못한 사태에 대해 원망하거나 아쉬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2012년 2월에 간행된 『그래도 3월은, 다시(それでも三月は、また)』라는 작품집 중에서 사에키 가즈미(佐伯一麦)가 쓴 「히요리아마(日和山)」라는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자연재해로부터 1주일 정도 경과한 후 지인과 함께 쓰나미로 흔적이 없어진 근처 지역과 그 지역의 ‘히요리아마’를 살펴보는 소설이다. ‘히요리아마’를 살펴보는 도중, 산 뒤쪽에서 쓰러져 있는 “진소(震瀟)기념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 조삼³²⁾이라는 2.5미터 정도의 돌에 새겨진 비문을 발견하게 된다. 1933년 3월 쇼와 산리쿠 지진의 교훈을 세긴 이 “쓰나미의 계석(戒石)”을 보면서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당시의 역사적 경험과 경계, 그리고 교훈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2011년에 다시 무참하게 큰 재해를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은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³³⁾

이와 같이 3.11 동일본대지진과 이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부와 도쿄전력은 쓰나미로서 상정할 수 없는, 즉 상상의 범주와 기능성을 뛰어넘는 자연재해였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책임을 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소설 「히요리아마」에 나오는 ‘쓰나미 기념비’처럼, 「산리쿠 쓰나미」와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 두 작품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었으며, 반드시 다시 대형 쓰나미가 찾아올 것이라고 다양한 형태의 교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경계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이들 작품은 대형 쓰나미 이후 기억에서 멀어져 가는 거대 재해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였으며 자연히 방재 의식이 약해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그럼에

31) (2011.03.13)「東日本大震災：福島第1原発炉心溶融 幾重もの対策不発 東電「想定外」繰り返す」『毎日新聞』『大阪朝刊』

32) 佐伯一麦(2012.2)「日和山」『それでも三月は、また』講談社、p.232

33) 조미경(2014.5)「일본현대문학자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과 인식-진재(震災) 원전(原電)문학집 『그래도 3월은, 다시(それでも三月は、また)』를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제44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35-252

도 불구하고 3.11 동일본대지진과 대형 쓰나미가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일본 동북부 지역은 메이지 산리쿠 지진 때에 버금가는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나아가 과학기술 선진국이라는 일본의 이미지에 상당한 충격을 준 원전사고까지 수반하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5. 결론

이상 고찰해 보았듯이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일본 동북부 지역 역사적으로 대형 쓰나미를 수반한 자연재해가 빈번했던 곳이다. 일본 근대 이후만을 보더라도 1896년 메이지 산리쿠 지진과 쓰나미, 1933년 쇼와 산리쿠 지진과 쓰나미, 1959년 칠레지진 쓰나미 등 대형 지진과 쓰나미가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에는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전대미문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문학계는 다양한 장르에서 이른바 ‘진재문학’이 활발하게 창작되었고 과거 간토대지진 이후의 진재문학을 둘러싼 연구와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진재문학의 활발한 창작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이 3.11 동일본대지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일본 동북부지역의 자연재해를 형상화한 진재문학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 1896년 메이지 산리쿠 지진과 쓰나미 이후 이 지역의 자연재해를 문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이들 문학은 주로 쓰나미가 주는 공포와 처참한 피해 상황, 그리고 비통한 현실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일본 동북부지역의 재해를 테마로 한 진재문학 중에서 스치 도쿠헤이의 소설 「산리쿠 쓰나미」와 요시무라 아키라의 르포르타주 문학인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는 근대기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 모두를 하나의 틀 속에 포괄하여 통시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소설 「산리쿠 쓰나미」와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는 연이어 대형 쓰나미 피해를 받은 일본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들을 진혼하고 자연재해의 공포를 기억하며, 향후 이 지역의 자연재해에 대한 커다란 교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두 작품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동북부지역에 거대한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또 다시 대형 쓰나미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다양한 형태의 기억을 통해 교훈을 제시하면서 경계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3.11 동일본대지진과 대형 쓰나미 또한 일본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괴멸적인 피해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3.11 당시에는 쓰나미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라

는 엄청난 후유증까지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책임의 위치에 있는 정부 담당자나 도쿄전력은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소설 「산리쿠 쓰나미」와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는 3.11 동일본대지진과 대형 쓰나미는 결코 ‘상정외’의 재해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규모의 자연재해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해사를 기억하고 경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이러한 경고와 교훈을 살리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진재문학’은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존재하지만 재해의 기억을 기록하고 나아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비하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산리쿠 쓰나미」와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는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앞으로도 진재문학 고유의 역할과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조미경(2014) 「일본현대문학자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과 인식-진재(震災)-원전(原電)문학집 『그래도 3월은, 다시(それでも三月は、また)』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제 44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35-252
- 安部貴洋(2012) 「被災体験を書くということ—吉村昭『三陸海岸大津波』と「おとなの眼」」 『教育』第62巻第3号, 国土社, pp.112-115
- 尾池和夫(2011) 「吉村昭著『三陸海岸大津波』を読む」 『環境保全』第26号, 京都大学環境安全保健機構附属環境科学センター, pp.2-5
- 尾崎紅葉(1896) 「藻くづ」 『文芸倶楽部』第2巻第9編 臨時増刊 海嘯義捐小説 博文館, p.3
- 北原糸子(2014) 「津波災害と近代日本」 吉川弘文館, p.172
- 木村朗子(2013) 「震災後文学論 あたらしい日本文学のために」 青土社
- 限界研編(2017) 『東日本大震災後文学論』 南雲堂
- 佐伯一麦(2012) 「日和山」 『それでも三月は、また』 講談社, p.232
- 佐藤美弥(2011) 「緊急特集 東日本大震災・原発事故と歴史学<史料・文献紹介> 吉村昭『三陸海岸大津波』」 『歴史学研究』第884号, pp.67-68
- 清水ますみ(2015) 「正岡子規の明治三陸地震津波—明治29年の新聞記事「海嘯」との出会い」 『地震学』Vol.6, 東北学院大学, p.114
- 志村有弘編(2011) 『大震災の記録と文学』 勉誠出版, pp.3-4
- 須知徳平(2011) 「三陸津波」 『大震災の記録と文学』 勉誠出版, p.7
- 須藤宏明(1998) 「須知徳平論—「南部牛方節」「春来る鬼」における<まれびと>の実体化」 『東北文学の世界』第6号, pp.71-84
- 高山文彦(2011) 「恐ろしさと美しさ—吉村昭『三陸海岸大津波』」 『有隣』第516号, p.1
- 高山文彦(2011) 「現地レポルタージュ『三陸海岸大津波』を歩く」 『文芸春秋』第89巻 第10号, pp.50-71
- 竹内正右(2011) 「東日本大震災：宮古市田老地区の津波被害を見て恐怖、伝承する大切さ痛感」 『毎日新聞』
- 正岡子規(1896) 「海嘯」 『日本』
- 三浦哲郎(1980) 『海の道・忍ぶ川』 新潮社, pp.201-202
- 柳田國男(1955) 『遠野物語』 角川書店

吉村昭(2004)『三陸海岸大津波』文芸春秋、pp.10-11

NHK情報ネットワーク・NHKソフトウェア編(2002)『NHK20世紀日本大災害の記録』日本放送出版協会、
pp.10-11

「[検証・東日本大震災](2) 10メートル防潮堤でも守れず=その1」『読売新聞』(2011)

「東日本大震災：福島第1原発炉心溶融 幾重もの対策不発 東電「想定外」繰り返す」『毎日新聞』(2011)

논문투고일 : 2018년 07월 01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8년 08월 07일
2차 수정일 : 2018년 0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8월 16일

〈要旨〉

근대 이후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과 일본근대문학의 역할

- 소설 『산리쿠쓰나미(三陸津波)』와 르포르타주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三陸海岸大津波)』를 중심으로 -

조미경

이 논문은 3.11 동일본대지진과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였던 일본 동북부지역의 쓰나미 재해를 형상화 한 문학작품과 문학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그 전모를 고찰한 것이다. 특히 메이지 산리쿠(明治三陸) 쓰나미, 쇼와 산리쿠 쓰나미, 칠레대지진 당시 쓰나미 모두를 통시적으로 포괄하여 묘사한 스치 도쿠헤이(須知徳平)의 소설 『산리쿠 쓰나미(三陸津波)』와 요시무라 아키라(吉村昭)의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三陸海岸大津波)』를 연구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기록문학으로서 진재문학의 위치와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사실 1896년 메이지 산리쿠 지진과 쓰나미 이후 이 지역의 자연재해를 묘사한 문학작품은 주로 쓰나미에 초점을 맞추어 쓰나미가 주는 공포와 처참한 피해 상황, 그리고 비통함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일본 동북부지역의 재해를 테마로 한 진재문학 중에서 『산리쿠 쓰나미』와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는 근대기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 모두를 하나의 틀 속에 포괄하여 통시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동북부지역에 거대한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또 다시 대형 쓰나미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다양한 형태의 기억을 통해 교훈을 제시하면서 쓰나미에 대해 경계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 두 작품의 재해 기억의 기록과 교훈에도 불구하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은 이러한 경고와 교훈을 전혀 살리지 못하였다. ‘진재문학’은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존재하지만 재해의 기억을 기록하고 나아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산리쿠 쓰나미』와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는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진재문학 고유의 역할과 의의라고 할 수 있다.

The Great Earthquake in the Northeastern Part of Japan since Modern Times and the Role of Japanese Modern Literature

Cho, Mee-Kyoung

This paper analyzes the literary works that symbolize the tsunami disaster in the northeastern part of Japan, which occurred in a similar pattern to 3.11 East Japan great earthquake disaster. Particularly, I examined the novel “Sanriku Tsunami(三陸津波)” of Tokuhei Suchi and the “Sanriku Coast Giant Tsunami(三陸海岸大津波)” of Akira Yoshimura, which symbolize both the Meiji Sanriku Tsunami, the Showa Sanriku Tsunami and the Chilean Earthquake Tsunami. So I tried to clarify the location and meaning of the disaster literature as the record literature.

In fact, literary works depicting natural disasters in the northeastern part of Japan focused on tsunamis, and often portrayed the horrors of the tsunami, the terrible damage, and bitterness. Among them, “Sanriku Tsunami” and “Sanriku Coast Giant Tsunami” were intended to present a lesson that huge natural disasters are repeated in the northeastern region, and that large tsunamis must come again. Nevertheless, the 2011 East Japan Earthquake did not take all these warnings and lessons. ‘Disaster literature’ has various roles and functions. However, as can be seen from “Sanriku Tsunami” and “Sanriku Coast Giant Tsunami”, disaster literatures can record memories of disasters and offer lessons for disaster preparedness. This is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disaster literature.